

지역산 아생차로 만듭니다

●농수산물직접 한국전통차문화개발사업  
●우리 차문화의 자연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액과 직거래)

0595183-9665 / 83-3478

# 현대불교

고령층에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이자가 조금만 모으면 금리보다 내리는 '빅만평생통장'으로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문의처: 080-023-4000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발기 2539년(서기 1995년) 11월 2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금주의 법**

행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십주경)

**법회 안내**

- 석불사 (02)712-1765
- 석불사법회 1·3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원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연초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해인선원 (032)603-3326
- 초64부암의 매월 1일(음) 보현법회 매월 15일(음) 이문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함정법회의 매주 화·금·토
- 인현 영덕사 (032)502-2836
- 지장선회 매월 15일(음)
- 예천 포교암 (0584)654-6788
- 이문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동고법회 매주 수 오후8시 가산법회 매주 수 오후8시
- 가장해동용궁사(0523)362-7744
- 초64부암의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 덕명사 (062)365-0367
- 이문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향교법회 1·3주 일 오후4시
- 법원사 (062)234-2207
- 산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마암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 천명사 (062)234-6203
- 지장선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 “이런때 크게 깨우치는 거야”

“큰스님, 이 난감한 사극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요즘 온통 난리들이지. 모두들 도둑놈 거느리고 살면서 말이야. 공부는 이런때 하는거야. (스님께서는 당신의 팔도를 교정해 보이시면서 빙그레 웃으셨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 노 전대통령이 요즘 전국민에게 큰 공부시키고 있는거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느 한 편만 보면 안되지.

내 말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노 전대통령은 지금 멋진 연극 한마당 벌이고 있는 거야. 안그런가? 이게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인생기 쟁점.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난 늘 강조하는데 주먹만한 실례 뒤에 주먹만한 성취가 있고 산등어리만한 실례 뒤에 산등어리만한 성공이 있는 법. 세상은 고정된게 없어.

지금의 노씨 문제 또한 오래전부터

**해암·승찬스님 盧씨에 일갈**

그 산에 그 절이 있고, 그 절에 가면 언제나 가르침이 있다. 큰 스님이 아니 계시면 하도못해 물 소리 산새 소리기 시지후를 대신한다. 노태우씨 사건으로 온 국민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요즘 그 절에 계신 큰 스님은 유열하고 계실까. 아니, 무어라 일갈을 하실까. 해인총림의 해암 방장스님(조계종 원로회의장)과 조계총림의 승찬 방장스님을 찾아 한 말을 청했다. (편집자 주)



해암 (해인총림 방장)

승찬 (조계총림 방장)

**“산등어리한 실패 뒤엔 산등어리한 성공 있는 법 저승까지 죄업 안가져 가니 盧씨에겐 차라리 행운이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나 이번엔 달라져. 이런 때 크게 깨우치는 거야.

“에, 스님, 너무나 귀하신 말씀입니다.”

▲ 그래,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래서 미흡한 내 마음을 벗으로 삼지 말라는 거야.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그 마음을 ‘진심’이라고도 하고 본성, 자성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본심을 잃어버린 때문이야.

노 전대통령 또한 이 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지저분 것이

자. 본래 마음으로 아 그 사람 마음이 나 내 마음이나 똑 같애.

하지만 노씨에게 이번 일은 행운이야. 그 죄업을 저승까지 지고 간다고 생각해 봐. 끔찍한 일이지.

“스님, 이런 때 재가불자들은 필드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말씀 주십시오.”

▲ 모든 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야. 자작자수(自作自受)지. 이걸 꼭 알아야 돼. 인연법에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어. 거들 강조하지만 큰 성취는 수미산만큼 큰 실례 뒤에 오는 거야. 누구나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갈나고 너는 못났다는 식이 될 일도 안돼. 이 기회를 본래 마음자리 찾는 일에 써야지.

본심을 잃으면 어룡만이 계속될 뿐이야.

해인사=윤제학 차장

“이미 열려있는 바른 길들 가지 않음은 누구 책임인가 부처님께서 인간의 도리를 누누히 강조하셨잖는가”

“전직 대통령이 옳지 못한 재물을 쟁긴 열의로 구속 수감되는 사건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매우 큼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 나야 산중에 사는 사람이나 이 어지러운 상황을 잘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 부처님께서 칭된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중생들의 삶이 자꾸자꾸 죄업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봐야겠지. 이미 열려 있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부처님께서 계·정·혜의 이치를 바르게 알고 실천할 것을 누누히 강조하셨잖는가. 인간다운 삶과 풀이 되는 계행(5계)을 어긋남이 없이 지키고 자신의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가를 살피면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야. 이 도리를 잊지 않는 것이 망녕되지 않는 것이요, 바로 이것을 부처님

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지. 달리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그릇됨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굳이 화선을 하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켜 보며 마음의 잘못된 점을 다스려야 하는거야. 노씨도 ‘내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가’를 생각했다면 지금처럼 감옥 신세는 되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정대한 사람은 재물의 탐심도 능히 이기는 법이거든.

끝에 다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꾸벅꾸벅 잠만 많이 하는 것보다(그것 자체도 큰 공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마음을 관조하며 바른 길을 따라 가는 것이야.

“큰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세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조차 모르고 고달리는 삶의 굴레를 벗어 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스님의

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지. 달리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

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지. 달리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

승찬 (조계총림 방장)

### “토지관련 세금 면제” 촉구

조계종 총회 對정부 결의문 채택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스님들은 “정부 및 집권당은 불교계에 공약한 종부세 및 토지 관련 세법을 입법 취지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해 불교계 토지관련 세금을 즉각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제119회 총회에서 의원스님들은 만장일치로 ‘종합토지세 문제해결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행도량이 각종 세법으로 인해 유실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불교계에 대한 기만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스님들은 “정부와 집권당이 공약한 종부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백만 불자 서명 확산 및 산문폐쇄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권민기사 2면)

한편 이날 총회는 중앙총회법 제69조(의결결속수)를 “다만 총법안의 의결은 자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등 중앙총회법 총무원법 예산회계법 총무원장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중앙승가대 이장을 위한 교육특별분담금을 향후 5년 간에 걸쳐 실시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는 총무원장이 추천한 성태스님(불국사 부주지)을 찬성 34표 반대 3표로 포교원장에 선출했다. (인터뷰 7면)

### 조계종 내년예산 103억여원

총액사업 21%...강사양성비 3억6천만원 신설

조계종 예산이 1백억원을 넘어섰다.

조계종 제119회 정기중앙총회는 지난 17일 95년보다 36.5% 늘어난 예산 1백3억3천344만원을 심의 확정했다.

분담금 수입은 95년보다 18억 834만원이 늘어난 65억9천8백34만원, 직영사업 수입은 16% 증액된 30억원이 예상된다.

사업별 예산 배정을 보면 역경 도제양성 포교종 공단의 3대사업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액 사업에 22억2천만원이 책정됐다. 분야별로는 △종단종합전산망 구성 추진 5천만원 △종무행정개선 4천만원 △종복사업 지원비 8억8천만원(불교방송 3억3천만원, 불교TV 5천만원, 나눔의 집 7천만원, 사회복지재단 3억, 복지사업단체보조 5천만원, 불교신문 5천만원) 등이다.

또한 내년 불교 청소년의 해 지정과 관련 불교청소년의 해 사업 1억9천8백50만원, 신도회 사업을 위한 1억원의 비용이 각각 책정됐다.

### 청사건립비 10억원 책정

조계종이 내년도 예산에 청사건립비 10억원을 책정, 향후 새 청사 건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 각 부서 사무실과 회관, 소임자 스님들의 요사로 쓰고 있는 현 건물은 지난 1975년 완공돼 총무원 청사로 쓰여왔으나 시설이 복지사업단체보조 5천만원, 불교신문 5천만원) 등이다.

또한 내년 불교 청소년의 해 지정과 관련 불교청소년의 해 사업 1억9천8백50만원, 신도회 사업을 위한 1억원의 비용이 각각 책정됐다.

조계종이 내년도 예산에 청사건립비 10억원을 책정, 향후 새 청사 건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 각 부서 사무실과 회관, 소임자 스님들의 요사로 쓰고 있는 현 건물은 지난 1975년 완공돼 총무원 청사로 쓰여왔으나 시설이 복지사업단체보조 5천만원, 불교신문 5천만원) 등이다.

또한 내년 불교 청소년의 해 지정과 관련 불교청소년의 해 사업 1억9천8백50만원, 신도회 사업을 위한 1억원의 비용이 각각 책정됐다.

### 신문밖의 禪 - 조훈현 師 5면

### ‘고속철 우회노선’ 국회청원 14면

## 인기상승! 기아가 달린다



고객이 원하는 차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빅히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급상승 중입니다.

지금, 기아를 주목해 주십시오. 기아가 점점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차종별 특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풀라인업 구축, 소비자 중심의 신차개발과 잇따른 빅히트, 세계엔터와 세계시장에서 입증된 탁월한 품질,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로 똘똘 뭉친 勞와 使... 그결과, 기아차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新기술의 힘으로, 고객 여러분의 사랑으로 지금 기아의 성장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아를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